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와 陰陽合德論

李京原*

目 次

I 부.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

- I. 머리말
- II. 대순종지의 구성체계
- III. 대순종지의 이해
 - 1. 음양합덕
 - 2. 신인조화
 - 3. 해원상생
 - 4. 도통진경
- IV. 대순종지의 사상적 특질
- V. 맺음말

- II. 음양합덕의 문헌적 근거
 - 1. 음양의 개념과 대대성 논리
 - 2.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
- III. 천지공사에 나타난 음양합덕론
 - 1. 천지공사의 배경
 - 2. 음양합덕에 근거한 공사사상
 - (1) 음양의해원사상
 - (2) 일음일양 사상
 - (3) 음양의 조화사상
 - 3. 음양합덕의 실현

II 부. 천지공사에 나타난 음양합덕론

- I. 머리말

IV. 맺음말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I 부.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

I. 머리말

대순진리회 요람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조정산 도주께서 만주 봉천에서 강성상제로부터 그 천부의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으신데서 비롯하여...』¹⁾ 라고 하였듯이, 대순진리회는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가 강성상제(姜聖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창설한데서 종단의 역사가 비롯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의 요체는 조정산 도주의 종단창설 당시의 표방된 취지에 그 핵심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1925년 을축년에 무극도를 창도하면서 정한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그리고 목적(目的)에 주로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²⁾ 이 중에서 특히 종지(宗旨)는 그 종교의 사상을 압축시켜 표현한 사상적 총체로써 불교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사상과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사상과도 대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연구에 있어 그 사상적 개요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 과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곧 종지(宗旨)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도 이로부터 파생되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특히 대순종지(大巡宗旨)가 지니는 사상적 구조와 특질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宗旨 하나하나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그것의 간략한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II. 大巡宗旨의 構成體系

대순종지(大巡宗旨)는 크게 네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이 그것인데 이는 종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각자의 고유한

1)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p.5

2)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201, 敎運 2장 32절 참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되고 각자의 전문성이 고도로 발달된 시점에서는 어느 한 분야의 독단적인 의견이 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을 뿐더러, 더구나 각각의 분야별로 이질화된 성향과 그 독창성을 구가하는 현상은 사회구성원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기까지 하므로 하나의 사상이 기능해야만 하는 사회적 역할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부터 출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수는 특수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 종교전통도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은 끝까지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은 어디까지나 자기초월적, 자기 부정적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날과 같은 종교다원세계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같이 특수와 보편, 상대성과 절대성 그리고 열정적 헌신과 관용적 겸손을 동시에 균형있게 취하는데 있을 것이다.³⁾ 대순종지(大巡宗旨)가 지향하는 바의 이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실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절대적 보편의 경지에의 합일(合一)을 유도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의 사상이 미칠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종지가 포괄하고 있는 사상적 영역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말하자면 하나는 철학이며 둘째는 종교이며 셋째는 윤리이며 넷째는 사회이다. 여기서 이 네가지만을 단정지어 말한다는 것은 자못 종지(宗旨)가 지향하는 총체적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사상계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분야를 설정하여 그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그 사상적 가치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와 상호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그 현대적 이해도 한결 수월하리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들이 차지하는 학문적 의의와 종지(宗旨) 하나하나를 이에 배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에서도 알수 있듯이⁴⁾ 참된 지식에 대

3) 김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서울 민음사, 1994, p.27참조

한 탐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 있어서 지식은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보배로운 것이다. 이 보배로운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사색과 연구의 길을 더듬어 나간다. 그리고 진리를 동경하는 인간의 욕구는 증도에서 중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까닭에 우리는 끝없이 사유에 사유를 거듭하는 것이며 이같이 보다 깊고 정확한 지식에로의 접근을 꾀하는 노력이 다름아닌 철학의 출발점이요 또 그 과정이 되는 것이다.⁴⁾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 철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문화의 특성과 의의를 집적하여 농축된 형태로 표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간이나 문화의 행태에서 철학이 나오는 것이지, 철학이 인간행태나 문화행태에 영향은 미칠지언정 이를 창조해 내는 것은 아니다.⁵⁾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행태에 따라 각각 그 철학적 특질이 달리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이며 오히려 상반된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물론 환경의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은 하나는 분석적 경향을 띄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종합적 경향을 띄고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⁶⁾ 동·서간의 문화적 마찰도 모두 이러한 철학적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대립과 투쟁을 야기한 것도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동서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철학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동서철학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양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철학사상을 탐구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대순종지(大巡宗旨)의 내용 중에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철학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음양이

4) '哲學'이라는 말의 西洋語源은 'philosophia'에 있다고 한다. 본래 知(sophia)에 대한 사랑(philos)을 뜻하는 합성어로 알려져 있으나 이 말의 분석이 철학이라는 말의 현대적 語義의 전부를 밝히는 묘방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철학하는 정신의 근본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철학개론』 서울대 출판부, 1993, 1장 철학이란 무엇인가. 참조)

5) 김태길 『철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93, p.17

6) 최영진 『동양과 서양』 서울 지식산업사, 1993, p.104

7) 이는 마치 서양에서 집안을 장식할 때 분수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연못이 발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개별적 성향을 띄는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대체로 인정하는 바이다.

라는 개념이 현실적 존재양상을 분석하는 동양철학적 개념의 틀이며 이를 合德이라는 용어로 맺어줌으로써 그 만남과 통일의 자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陰陽合德은 하나의 철학적 이상으로 제시되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사회내에서도 부단히 생성되고 소멸되는 종교단체의 숫자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얼마든지 많다.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충동을 애니미즘적이거나 토테미즘적인 신앙으로 표현하였으며, 문명의 여명기부터 매우 많은 종교들이 발달해 왔고 각각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보다 발달한 세계의 종교들의 경우 고도로 복잡한 신관념을 가지고 있다. 유태교에는 야웨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회교도들은 알라를, 힌두교에서는 시바나 비슈누를, 소승 불교도들은 니르바나를 섬기고 있다. 더욱이 오헤어(Madalyn Murray O'Hair)나 미국 무신론자 협회처럼 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삶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독특한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다.⁸⁾ 이처럼 종교의 영향은 지대하니 만큼 종교에 관한 정의도 다양하기 마련이다.⁹⁾ 하지만 편의상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한가지 인용하면 “종교는 궁극적인 실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믿음과 행위와 정서의 집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¹⁰⁾ 여기서 말하는 실재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고 다원적일 수도 있으며 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신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종교마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문화적인 현상들은 이 정의에 들어 맞는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8) 하종호 역 『종교철학』 이대 출판부, 1994, pp.7~8

9) ‘종교의 정의는 종교학자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말해질 정도로 다양하다. 일본문부성 조사국 중무과편, 1961. 『종교의 정의를 둘러싼 제 문제』 라는 저서에는 무려 104가지 정의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0) 하종호 역. 上書, p.10

11) 하종호 역. 上書, p.10

라는 시대적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포스트모더니즘·문화다원주의가 종교에 대한 인식에 투영되면서, 서구 기독교신학의 배타적 진리성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새로운 종교관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철학자·신학자들 사이에서 ‘신권(神觀)의 탈서양화’, ‘신학의 탈서구화’ 등이 논의되는 것이 그 하나의 표징이다.¹²⁾ 이러한 종교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대순종지(大巡宗旨)의 내용은 바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궁극적 실재로서의 신(神)과 이를 신앙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조화(調化)’라는 새로운 개념으로써 창출되어지는 이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째로 윤리의 문제는 인간행위의 가치기준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실천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윤리학은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즉 올바른 실천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다는데 있어 ‘당위(當爲)의 학(學)’ 또는 ‘가치(價値)의 학(學)’으로 불리워지고 있다.¹³⁾ 선(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옳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윤리라는 것이 그 행위 규범에 있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항상 시대성을 안고 전개되어 나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대도 있었다. 오늘날 현대가 처해있는 윤리의 문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타락과 환경오염, 가족윤리의 붕괴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그 치유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새로운 윤리적 실천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미래의 복된 생활을 위해서라도 보편적 도덕규범을 확립해야만 하는 사명을 인류는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인류의 윤리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원(解冤)’이라 함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불상

12) 최영진 「탈근대문명과 유교」 『과학사상』 1996 여름, p.250 참조

13) 김태길 『倫理學』 서울 박영사, 1994, p19

사를 없애고 나아가 '상생(相生)'이라고 하는 상호 화합의 태도를 모색함으로써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윤리적 이상은 바로 이러한 해원상생(解冤相生)에서부터 도출되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네째로 사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인류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사속에서 아직까지 단 한번도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이루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 즉 물질주의와 정신주의가 대립하고 신(神)과 인간이 대립하며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양상속에서 끊임없는 갈등만을 유발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¹⁴⁾ 그리하여 인류의 가슴속에는 항상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이 담겨져 있으며 모든 사상가들 뿐만이 아니라 역대의 성인(聖人)들은 이러한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도 그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에 적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이라는 말 속에는 '도(道)'라고 하는 진리를 통한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이루는 참된 경지로서의 사회를 뜻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모든 인류가 화합하고 그 소망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대순종지(大巡宗旨)에서 하나의 사회적 이상을 나타내는 말로써 이해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순종지(大巡宗旨)의 구성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저마다 지향하는 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호 영역간 배타성을 띠기 보다는 긴밀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종지(宗旨) 상호간에도 단절될 수 없는 병렬관계에 놓고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대

14) 근세의 불란서혁명(1789)같은 경우 이는 선천적 인권의 문제를 놓고 봉건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주창한 혁명이었으며 이는 천부적 인권을 회복하려는 정신주의의 부르짖음에 다름아니다. 이에 반해 볼셰비키혁명(1917)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일어난 평등의 혁명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모든 인간이 고루 누려야만 한다는 물질주의의 주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적인 두가지 조류는 그 주창하는 바에 따라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상호 대립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순사상(大巡思想)이 지향하는 바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종지의 총체적 실현에 놓여져 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종지(宗旨) 네가지에 대한 그 의미분석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Ⅲ. 大巡宗旨의 理解

1. 陰陽合德

대순사상에 있어서 음양합덕(陰陽合德)에 관한 이해는 인류의 바람직한 철학적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에 대한 참된 지식(眞)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지을 수 있는 인간행위의 독특한 분야라고 하겠다. 실재로 오늘날 인류문화와 문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철학적 사유능력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철학적 사고는 어느시대건 그 시대의 인간 삶의 양식을 대변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갔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까지도 인류가 바라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거듭되어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인류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로써 환경오염,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부도덕과 부조리가 판치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도 인류의 각성이 요구되어 지는 때라 하겠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초래는 전적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사고와 그 지적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일 먼저 인간의 사고가 보다 원만하고 바람직한 철학적 사유를 정립 하므로써 그 해결의 조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음양합덕이라는 원리를 통해 그 철학적 이상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음양(陰陽)이라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존재양상을 규정 짓는 말이다.¹⁵⁾ 즉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이라는 정반대의 양면성(兩面性)을

15)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陰陽은 기후로 나타내는 <原始的>개념으로부터 二元氣라는 <原質的>개념으로 발전하고 만물의 유기적 연관성과 변화의 기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양면성이 상호 합일되어 실재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이라는 개념은 모두 어떠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적 설명체계라는 점에서 각각 특정한 사물이나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사물에는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의 두가지의 대별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상반된 양태를 찾아내어 그 두 성질의 상호 대립과 통일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실질적인 여러 현상에 대비하여 음양구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화(水火)에 비해서 말하면 수(水)는 음이 되고 화(火)는 양이 되며, 하늘에 있어서 해(日)는 양이 되고 달(月)은 음이 되며, 사람에게 있어서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인간과 신(神)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양이라면 신(神)은 음이 된다. 한 인간개체에 있어서도 육체가 양이라면 정신은 음이다. 그리고 인류가 살고 있는 지리적 환경에 있어서도 서양이 양이라면 동양은 음이다. 방향에 있어서도 왼쪽이 음이라면 오른쪽은 양이다. 인류문화에 있어서 과학이 양이라면 종교는 음이다. 인생에 있어서 말하자면 삶이 양이라면 죽음은 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개체를 음과 양으로 규정짓는 것이 꼭 그 개체의 고유한 성질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대하고 있는 사물사이에 상호 전환되어 적용할 수 있는 유동적이며 이론적인 분석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는 모두 극단적으로 상반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 상반된 성질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상대하여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음과 양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극단적으로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해서 상호 대립하고 서로를 적대시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있다. 그리하여 이 세계는 서로 대립되는 사물들간에 투쟁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오늘날 수많은 인류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둘을 음양의 관계로 볼 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려는 데서 오늘날 자연

표상하는 <범주적>개념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영진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성대박사논문, 1989, p.24)

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져 왔으며, 남과 여의 관계에서도 상호 적대시하는 사고로 인해 오늘날 남녀 불평등의 사회를 야기하였으며,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어떤 시대의 추이에 있어서 종교 또는 과학중 어느 한쪽에 지배되어 인류문명이 전개되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¹⁶⁾ 이러한 현상은 한 종교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간존재를 육체와 정신의 상호 대립된 존재로 보고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여 수양하므로써 정신적인 해탈만을 구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영생만을 구하는 현상을 야기했던 것이다.(예를 들어 불교가 정신적 해탈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도교는 육체의 불로 불사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음양이라는 상호관계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고 상보적(相補的)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음양합덕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 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음양의 관계는 대대적(對待的)관계라고 불리우기도 한다.¹⁸⁾ 즉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반대되는 상대가 존재해야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품은 관계'라고 하겠다. 이는 마치 남녀에 있어서 부부 사이와도 같다. 즉 서로의 체질과 성격이 틀리더라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한 어느 한 쪽의 장단점이 상

16) 이와 관련하여 典經에 나타난 상제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 1장 9절)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17) 상호보완성에 대하여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相補性이라는 개념은 두개의 다른 좌표계를 통하여 동일한 사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두개의 좌표는 서로서로 배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서로 상보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 두개의 모순되는 좌표계의 양립이 있고 나서 비로소 현상의 출현에 관한 완전한 관찰에 가능하게 된다.」(김용준 역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1980, p.8)

18) <對待>는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계」, 「상호대립하면서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일단 규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周易』의 원초적인 구성원리인 동시에 현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원리이다. (최영진, 上揭論文 p.7)

대에게 있어서 보완이 되며 그리하여 어느 한 쪽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같이 만나서 하므로써 이루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로의 덕(德)을 합하므로써 새로운 조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¹⁹⁾ 여기에 오늘날의 대립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인류의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요도가 있다 하겠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또한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이상이 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때 인류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이상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의 인간존재로써 평등하며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서로에게 보완이 될 때 남녀평등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므로 인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야기하였다면 종교와 과학이 상호 보완되어 서로의 극치에서 만나 인간을 위해 존재할 때 인류의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도 음양합덕의 원리가 필요하다. 즉 사물을 대할 때 직관적 사유와 분석적 사유가 있다면 이 두가지사유가 병용되어 쓰여지므로써 바람직한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진리의 인식에 있어서도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상호 보완된 측면에서 이루어 지므로써 편협되지 않는 참된 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음양합덕의 원리는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오늘날의 편협된 인간의 사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가 모두 상호 대립과 투쟁 그리고 반목에서 나왔다면 이를 극복하고 새 시대의 참된 화평(和平)의 모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이라는 철학적 이상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神人調化

신인조화(神人調化)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류에게 바람직한 중

19) 『周易』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陰氣의 陰德과 陽氣의 陽德이 서로 합하여 강한 성질과 유한 성질이 우주의 운행으로 본체를 삼아 우주정신의 德化에 통한다고 하였다. (周易, 繫辭 下「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二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교적 이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신학(神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면 주로 인간을 초월해 있는 절대자 또는 신적존재에 대한 탐구의 학문으로 인간행위의 역사를 모두 신의 의지와 그 영광으로 돌리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인 신에 의한 지배대상으로 전락하기 마련인 것이 전통 신학의 관점이라 하겠다.²⁰⁾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회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며 더구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외현상은 인간을 더욱 타락된 상태로 몰고 가기에 충분하다. 전경(典經)에 따르면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닦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교법1/1)라고 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인류가 파멸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전적으로 물질에 치우친 인류의 교만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인류사회에 있어서 종교가 담당해야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인류가 합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기존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종교적 투사에 문제점이 있다할 수 있다. 무조건 우상화되고 절대화되고 관념화된 거짓하늘에 대한 종교적 투사보다는 참 하늘에 대한 바른 관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만이 오늘날의 상극상을 종식시키고 그 종교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²¹⁾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과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신인조화(神人調化)를 이해하는 대체적 관점을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신

20) 신학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의 좁은 의미로는 神(그리스어로 theos)에 관한 이론적 논의(logos)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해 온 말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신학이란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에 관한 성찰 내지 숙고, 교리와 전통에 대한 고찰 그리고 신앙과 전통의 현대적 의미들을 논하는 학문이다. (길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민음사, 1994, p.48)

21) 박종천 『기어가시는 하느님』 감신, 1995, p.253참조

(神)은 진리의 표준(또는 기준)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을 이해하는 것을 인간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합치되어야만 할 이상적 질서체계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음양합덕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우주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간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세계의 질서는 곧 신의 세계의 질서와 합치되어 운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이러한 신관에 입각해서 보면 인간의 세계를 대하듯이 신의 세계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 신의 세계에서는 인간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주재자가 있으면 그 밑에 수많은 군신(群神)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인조화의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을 진리의 표준으로 이해할 때 신의 세계의 질서는 인간세계와 달리 아주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형성된 신도(神道)는 인간의 모든 예법과 도덕성을 인출(引出)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역대 성인(聖人)이 만든 모든 예법은 모두 다 신도에 근거한 가르침을 받들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고 형식화하여 나온 것이 기존 종교의 현상이라고 하겠다. 동양고전인 주역에 따르면 『신이란 만물을 묘(妙)하게 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하고²²⁾, 조선의 서화담은 『하나이므로 묘(妙)하고 둘이므로 화(化)한다』고 하였다.²³⁾ 즉 신은 진리가 하나라는 점에서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있으며 만물이 이를 표준으로 삼아 구성될 때 비로소 이상적 질서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세계도 이러한 진리의 세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자각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장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인간존재의 본질이 새롭게 논의될 수 있게 된다.

송대 유학자인 주렴계(周濂係)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의하면 『인간은 그 빼어남을 얻어서 만물중 가장 신령스러우니 형체가 이미 생겨나고 그 신이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하였으며²⁴⁾, 중국최고의 의서인 황제소문(黃帝素問)에서는 『천지가 기를 합하니 그것을 명하여 말하면 사람이다.』라고 하였

22) 『周易』說卦傳 「神也者，妙萬物而爲言者也，」

23) 『花潭集』 권2, 理氣說 「二故化，一故妙，」

24) 『性理大全』 권1 太極圖說 「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神發知矣，」

다.²⁵⁾ 이것은 인간존재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대표격에 있으며 특히 신령스럽다는 점에서 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치실현의 주체로서의 인간이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心)에 있다 할 것이다. 전경(典經)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드나드는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으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서 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행록 3/44)라고 하여 마음의 본질을 신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⁶⁾ 즉 인간주체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선을 행하려 하면 그 선(善)에 입각한 신이 응하여 그대로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반면에 악을 행하려 하여도 또한 그 악(惡)에 입각한 신이 응하여 그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²⁷⁾ 이와 관련하여 상제의 다음과 같은 言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桀)이 악(惡)하였던 것도 그 때이며 탕(湯)이 선(善)하였던 것도 그 때이다. 하늘은 결(桀)을 악한 것에서 가르쳤고 탕(湯)을 선한 것에서 가르쳤다.²⁸⁾

즉 신의 의지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현대 문명의

25) 黃帝素問「天地合氣 名曰人」

26)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或有善或有惡，善者師之惡者改之，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27) 조선후기 실학자 丁茶山은 天道와 관련하여 인간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늘은 이미 德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人性을 부여하니 그가 善을 행하던지 惡을 행하던지 그로 하여금 유동성있게 행위에 맡겨두니 이는 떨며 두려워야 할 神權妙旨이다.」(與猶堂全書『論語古今注』 권9, p.12 「天既賦之以好德恥惡之性，而若其行善行惡，令可遊移，任其所爲，此其神權妙旨之稟然，可畏者也」)

28) 典經，공사3장 39절 「桀惡其時也湯善其時也天道教桀於惡天道教湯於善」

위기와 도덕적 타락은 모두 인간의 자율의지가 신의 진리성에 부합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류가 다같이 공생 공영하기 위해서는 신도(神道)의 가르침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해 왔던 것인데 인류는 오히려 그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린 데서 오늘날과 같은 혼란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대성인(大聖人)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항상 선(善)으로써 교화를 하여 인류의 이상사회가 선으로만 살아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니 그것이 다름아닌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원리에 의한 종교적 이상의 달성인 것이다.

전경에 보면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노라』(교법 2/55)라고 하여 인류의 이상사회는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에 의해 선(善)으로만 존재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존재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은 신과 합치 될 수 있는 장으로써 신성(神性)을 담는 것이며, 이러한 신성(神性)이 선(善)으로 발휘해 나갈때 인간이 이에 입각하여 그대로 어우러져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이상사회는 선(善)으로 충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간의 종교적 실천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행위하여야 하며 이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곧 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을 살펴볼 때 신인조화(神人調化)란 말하자면 신과 인간이 이러한 일체의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그 주체가 되는 마음을 인간이 선(善)의 의지에 의해 잘 다스려 나가자는데 핵심이 있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종교가 지니는 현실부정 혹은 도피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현실속에서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도(要道)가 되며, 신과 인간이 별개가 아닌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이상적인 종교적 이해라 하겠다.

3. 解冤相生

해원상생(解冤相生)이라 함은 먼저 신명과 신명,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간의 맺힌 원한을 풀고 그렇게 하므로써 상호관계에 있어 서로를 위하여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윤리적 이상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사상은 오늘날 극도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에 따른 윤리도덕의 부재현상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윤리도덕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경(典經)에서는 해원상생론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²⁹⁾

말하자면 우리 인류사회는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상호 공생 공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윤리적 바탕은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상호극해(相互克害)’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록 양적인 성장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상호 ‘원한’이 쌓여 각종의 재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기성종교의 가르침이 한 몫을 담당하였으니 불교에서 강조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사상이나 유교의 인 사상(仁思想)이나 그리스도교의 박애상신(博愛相信)의 이념은 모두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인류를 공존(共存)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개인적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경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면에서는 그렇다.) 그리하여 오늘날 종교의 분파는 수없이 많아지고 그 사상에 대한 연구업적도 지대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날 사회는 그다지 종교적 가르침과는

29) 典經, 공사 1장 3절

상관없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커져만 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명도 물질에 치우쳐 인간정신의 소외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은 자기 생존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상극적(相克的) 윤리가 범람하므로써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칼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 그것은 기존의 기성종교의 종교적 이념이 복잡다단한 상호관계속에서 이루어진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어 나왔으며, 오늘날 경쟁하는 사회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패배감과 이와 아울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적 혼란과 윤리도덕의 부재현상을 야기시키게 한 근본적 원인을 추리해 볼 때 그것은 곧 욕망을 채우지 못한 인간이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상극적으로 관계해 온데 주 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 주고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해원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원이 맺히게 된 최초의 사건은 정권쟁탈에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년전 동양의 성군(聖君)인 요(堯)임금은 왕위를 그의 아들 단주에게 물려주지 않고 효행이 뛰어난 순에게 물려주게 되며, 이로 인해 왕위를 물려 받지 못한 단주는 원한을 품고 순을 창오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마저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대순사상에서 바라본 현실관이다.³⁰⁾ 여기에 입각하여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30) 典經, 공사 3장 4절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고 하셨도다.」

것이 바로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이다.³¹⁾ 이 천지공사의 본령은 해원을 위주로 하여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이것을 이룩하므로써 지상선경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³²⁾ 따라서 해원의 의미 속에는 인류의 이상사회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상을 담고 있으며 모든 종교사상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력 또한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상생(相生)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 사상중의 오행설(五行說)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오행설(五行說)에 따르면 금(金)에서 수(水), 수(水)에서 목(木), 목(木)에서 화(火), 화(火)에서 토(土), 토(土)에서 금(金)이 나는 것을 상생(相生)이라 하고, 금(金)은 목(木)을, 목(木)은 토(土)를, 토(土)는 수(水)를, 수(水)는 화(火)를, 화(火)는 금(金)을 이기는 것을 상극(相剋)이라 한다.³³⁾ 따라서 상생·상극은 서로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주로 상극의 이치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도 상극적 윤리에 의하여 지배되어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타락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대순사상의 현실관이다. 즉 앞서 인용한 전경(典經)의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과 같은 윤리 도덕의 부재현상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도를 세워서 인간 상호간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이상사회 건설의 실천원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상생이란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잘되게끔 해주므로써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 또한 잘되게 된다는 개념이다.³⁴⁾ 이것은 내가 잘되기 위해 먼저 남을

31) 典經 공사 3장 4절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사시니라.....」

32) 典經, 공사 3장 5절.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33) 謝松齡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김홍경의 역, 연암출판사, 1995, pp.221~228 참조

34) 典經, 교법 1장 11절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

억누르고 짓밟는 상극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이상사회는 상생의 도가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일대 전환을 맞고 오로지 선의 이념만이 지배하는 지상낙원이 건설되므로써 기존의 상극적 윤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원상생의 이념은 우리 인류에게 윤리적 실천방향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내일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인간의 실천적 노력에 있어 전제조건이 된다. 대순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천지공사는 바로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에 입각하여 전개되었으며, 그 범위는 실로 전 우주적인 측면에 까지도 확대되는 보편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道通眞境

도통진경이란 대순사상에서 목적하는 바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써 ‘도(道)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는 뜻이다. 이는 개인의 이상(理想)임과 동시에 우주전체의 이상향을 설명하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도통이라 함은 기이한 일이나 이적(異蹟)을 행하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주로 참된 진리를 정각(正覺)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또는 인류사적으로 온전히 구현시켰을 때 이를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을 일컫는 말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종교에서 일컬어져 왔던 이상과 그 목적하는 바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모두 이 도통진경이라는 말속에 다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세계종교를 살펴볼 때 이는 인류사적으로 제각기의 역사적 풍토를 달리 하고 있으면서 각기 지향하는 바의 이상향을 표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오늘날 종교를 대표할 만한 각각의 종교사상이 그 지향하는 바의 가치를 달리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불도(佛道)가 형체의 진리를 추구하며 선도(仙道)가 조화의 진리를 추구하며 유도(儒道)가 범절(凡節)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³⁵⁾ 이에 근거하여 각각의 종교는 그

35) 典經, 공사 3장 39절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

발생배경에 따라 가치우선을 두고 있는 궁극적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며 실재로 그 이상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불교경전에 나타난 궁극적 이상향을 살펴보면 모두가 불법을 깨달은 경지의 완전한 청정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극락정토요, 실재로는 형상이 없는 세계를 형상이 있는 세계로 묘사한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극락정토란 부처의 깨달은 세계를 표현한 말임이 분명하다.³⁶⁾ 이는 다른 말로 인간의식의 현실 초월적 경지를 추구한 것이 본래 불교의 이상향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교가 가치우선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히 인간의 현실적 삶에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의 윤리도덕과 예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을 살펴보면 정치적 안정과 사회교화, 경제적 균형 그리고 완벽한 사회복지가 구현된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³⁷⁾ 즉 인간삶의 현실적 측면에서 주로 문제시 되는 사회적 부조리가 완전히 해소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완벽한 안정을 이루었을 때 이것이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이며 그 지향하는 바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가 지닌 현실 중심적 종교로서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목적하는 바의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크게는 불교에서와 같이 인간정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정신적 면의 이상과 유교에서와 같이 현실적 삶의 이상으로 각각 대별될 수 있다. 즉 현실적 삶의 고통을 피하고

36) 불교에서 이상향을 설명하는 단어로서는 흔히 '극락정토'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극락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경전을 정토경전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등의 경전이 있는데 물론 정토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뜻한 말이지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전부터 다른 부처님의 정토에 비해서 유달리 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익혀왔던 것이다. 정토경전의 주제는 극락정토의 왕생을 말한 것인데 곧 왕생이란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뜻이다. 그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부처가 깨달은 세계를 구체적으로 또는 형상적으로 묘사한 것이 정토경전에 나와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 역 『정토삼부경』 민족사, 1995, pp.155~164참조)

37) 『禮記』禮運편에서는 儒家의 이상향을 大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 人, 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 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자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치우쳐 그 안락된 삶을 추구하는 등 그 종교가 바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도통진경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현실사회에 비추어 크게 대별되어 말해왔던 이상사회를 오늘날 인류가 처해있는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모두 수용하여 크게 이루어야만 될 사명을 안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통진경의 의미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현실과 이상의 합치라는 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典經)의 다음과 같은 상제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도다.³⁸⁾

인류의 이상사회는 단지 물질적 측면의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으로만 달성될 수 없으며 이와 아울러 인간정신이 고도로 성숙된 경지를 같이 이룩한 사회를 말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자들이 낙원에 대한 가르침을 퍼 왔지만 그 낙원이나 천국은 먼 하늘위나 서쪽 어느 곳 그리고 죽고나서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계리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만 계속 강조해 나간다면 오늘날 복잡다단한 현실사회속에서 종교가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이 쇠퇴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류의 이상은 현실속에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상향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통진경이라는 말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진경의 사회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는 다른 말로 후천선경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전경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38) 典經 예시 30절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³⁹⁾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⁴⁰⁾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⁴¹⁾

이상의 전경구절을 통해 살펴볼 때 대순사상에 나타난 도통진경으로서의 후천세계는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에서의 이상적 경지를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정신의 성숙이 또한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도 인간의 생활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변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가히 지상선경(地上仙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이상사회라는 것이 단지 물질에 치우치는 것만도 아니며 정신적 초월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닌 정신과 물질이 조화되어 고도의 성숙된 경지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늘과 땅, 사람이 일체가 되어 고도의 통일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 우주적 차원의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류가 바라는 이상사회가 실제로 하늘과 땅·사람을 두루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비단 인류 뿐만이 아닌 그 밖의 하늘·땅과도 유기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주요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⁴²⁾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문제를 선

39) 典經 예시 75절

40) 典經 예시 80절

41) 典經 예시 81절

42) 典經 교법 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

행하여 해결하고 여기에 인간사회의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류의 이상은 달성되는 것이니⁴³⁾ 도통진경이 강조하고 있는 교의(敎義)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V. 大巡宗旨의 思想的 特質

앞서 살펴본 대순종지(大巡宗旨)에 관한 이해는 주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그 대체적인 이해만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사상적 요지는 많은 분야에 걸쳐 함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분화된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겠다. 이 단원에서는 대순종지(大巡宗旨)가 여타사상의 종지(宗旨)와 비교하여 어떠한 사상적 특질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순종지(大巡宗旨)가 가지는 사상적 특질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대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상대성을 인식하는데서부터 나아가 절대적 경지에서의 합일(合一), 즉 다원화된 세계에서의 화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특질을 지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음양합덕(陰陽合德)이라고 하였을 때 음과 양은 어느 하나의 우열을 논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이다 그리고 음은 양이 존재하므로 인해서 자신도 상대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부정되어서는 다른 한 쪽마저도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관계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이 둘사이의 관계를 합덕(合德)이라는 상태로 이루어지게끔 하므로써 상대성을 지니는 음양의 관계를 하나의 절대적 경지에서의 합일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 음양(陰陽)이 현실세계의 존재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세계는 다양한 사상의 난립을 인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체적

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여기서 갈등상황은 인간사회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등에 두루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3) 예시 73절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음양합덕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신인조화(神人調化)에 있어서는 이는 신(神)과 인간이라는 양자(兩者)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 때 신과 인간은 또한 둘사이의 우열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 관계로 보아 올바른 신인관계의 정립을 달성하는 것이 곧 종교적 이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조화(調化)'의 의미는 상호 조화(調和)에서부터 나아가 하나의 새로운 차원으로 '화(化)'하는 절대적 경지에서의 합일을 말한다. 그리하여 인간이라는 존재속에 신(神)을 내포하고 신(神)이라는 존재속에 인간이 내포되어지는 전체적 통일을 상징하고 있다.⁴⁴⁾

해원상생(解冤相生)은 곧 상대하고 있는 타인 또는 대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원(冤)을 풀고 상생(相生)이라고 하는 윤리적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상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원은 어느 특정 주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상대성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하여 상호관계내에서의 원망이 상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 화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⁴⁵⁾ 즉 상극적인 현실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화합과 평화를 구가하는 길은 오로지 해원상생의 도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표명한다. 이 또한 절대적 경지에서의 합일을 뜻하고 있다.

도통진경(道通眞境)에서는 '통(通)'자의 의미가 상대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통(通) 이전의 '불통(不通)'의 상태를 추리해볼때 어느 상대적 관계에 놓인 양자(兩者)의 교류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때는 어느 한 쪽의 책

44)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신과학이론에서는 홀로그래피이론이 대두되었다. 즉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부분과 부분은 상호작용한다”는 것으로 여럿의 각 개체들이 전체 하나를 그 속에 포함하여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을 반영하는 틀이 바로 홀로그램 패러다임이다. (김상일 『현대물리학과 한국철학』 고려원, 1991, pp.59~68참조)

45) 典經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공사 1장 25절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광찬이 여쭙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촌양반과 읍내아전은 그 계급적 우열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상대적으로 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이 아닌 상대적 원인에 의한 불통(不通)이다. 따라서 ‘통(通)’이라고 하는 경지에서 그 상대성을 서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만남의 장은 진경(眞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경지로 표현되며 여기서는 어떠한 원율과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장이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대순종지(大巡宗旨)는 모두 상대적 관계에 놓인 존재들간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주로 바람직한 이상으로서의 절대적 경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순종지(大巡宗旨)의 특질을 여타사상의 종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불가(佛家)의 ‘자비(慈悲)’와 유가(儒家)의 ‘인(仁)’은 모두 나의 남에 대한 태도를 규정짓는 말이다. 즉 자비(慈悲)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서’ 일체의 생명에 대하여 무량한 자비심을 베풀어 다함께 공생(共生)하자는 것이며⁴⁶⁾ 인(仁)은 남을 나와 같이 여겨 널리 사랑하므로써 구제하는데 그 뜻이 있다.⁴⁷⁾ 이와 같은 사상은 주로 한 개인의 인식주관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이 깨달은 본래적 정서를 타인에 이르러 미치는 확충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⁴⁸⁾ 그리하여 선악(善惡)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아량을 가지고 더불어 공생(共生)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순종지(大巡宗旨)는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즉 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체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지고 이러한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 하나의 절대적 합일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은 모두 이 세계 전체를 규정하는 상대적요소를 먼저 설정하고 그 요소간의 화합을 통해 절대경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자기수양도 중요하지만 전체성에 입각한 대세

46) 慈는 즉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이 말의 원어는 팔리어 metta⁷와 산스크리트어인 maitri⁷라고 하는데, 이것은 벗(mitra)에서 나온 관념으로서 진실한 우정을 말한다. 悲라는 것은 「연민」을 뜻하는데 원어는 karuna⁷로서 동정·공감·함께 슬퍼함 등을 의미한다.(『불교학대사전』 흥법원 편 참조)

47) 『論語』 顏淵篇 「樊遲問仁 子曰 愛人」, 雍也篇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48) 이와 같은 확충의 이론은 다음의 『孟子』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梁惠王 上)

(大勢)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의 흐름에 개인이 합치되어 나갈 때 인류전체의 이상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⁴⁹⁾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성을 전제하여 설정된 대순종지(大巡宗旨)의 사상적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특징이 단적으로 말해 이념적 다원성에 있으므로써 다원성에 입각한 상호이해와 나아가 화합된 세계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문화접촉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타문화와 종교, 사상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더이상 폐쇄된 사회와 획일화된 사고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상과 가치체계를 접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위협을 받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과 가치체계의 다원화에서 오는 혼란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종교적 광신과 열광주의에 도취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각 종교들은 타종교들의 도전을 받는 가운데 항상 그들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정비하고 정립해나갈 수 밖에 없으며, 각기 전수받은 전통을 현대의 상황속에서 재해석하거나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⁵⁰⁾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순종지(大巡宗旨)는 오늘날의 시대를 규정하고 미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도적 사명을 담당해야만 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대순종지(大巡宗旨)는 대순사상의 요체가 되는 그 사상적(思想的) 총화(總和)를 다루고 있다. 그 구성체계에 있어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고 이를 각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대순종지(大巡宗旨)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시각에

49) 典經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구절이 있다. 행록 5장 38절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공사 3장 39절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爲天下者不顧家事」, 즉 爲天下함은 천하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며 不顧家事는 이미 그 속에 개인의 수양이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50) 길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종교』 민음사, 1994, p.30

서 이를 기존의 학문영역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순종지(大巡宗旨)의 이해에서는 기존의 전반적인 사상사적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이와 대비하여 그 이념을 대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순종지(大巡宗旨)가 여타사상과 비교하여 지니는 사상적 특질에 대한 것이며, 본 고에서는 주로 이러한 특질적인 부분을 고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상대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절대경지에로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과학계에서도 20세기에 들어와 발달된 새로운 흐름을 신과학(新科學)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성원리, 양자물리학, 불확정성의 원리등이 그 대표적인데 이전의 과학이론과 뚜렷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계론적 사고에서 유기론적(organic) 사고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기론적이라는 말은 전체와 부분을 요소환원주의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가 부분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뉴턴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가 있다고 본 반면 20세기 과학은 그렇지 않으니 이를 신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⁵¹⁾ 과학계의 이같은 조류로 볼 때 대순종지(大巡宗旨)가 지향하는 사상적 특질의 부분은 다분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면서 내일의 통일

51) 김용준은 이러한 신과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본다. 즉 지금까지의 기계론적인 부분의 집합으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근원에 깔려 있는 전체적 연관성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즉 환원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두번째로 신과학은 데카르트가 분리시켜놓은 주관과 객관을 통합시킨다. 즉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한다. 세번째의 특징은 상보성이다. 광선을 입자나 파동 그 어느하나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입자(particle)와 파동(wave)을 합한 입자-파동(wavicle)으로만 빛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자와 파동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결국 상반되는 두 견해가 상보되지 않고는 사물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사물을 존재와 비존재와의 유기적 관계로 파악한다. 현대물리학의 장의 이론은 이미 철학에서 오랜동안 논의되어 오던 존재(being)와 비존재(non-being)의 구별을 짓지 않는다. 다섯번째는 「마음」 「정신」 또는 「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김용준·김영덕 편저 「신과학운동」 범양사 1989, 김상일 上書 p.20 재인용)

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이념의 다원화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순종지(大巡宗旨)는 어느 기존의 사상과도 차별성을 지니는 하나의 신사상(新思想)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Ⅱ부 天地公事에 나타난 陰陽合德論

I. 머리말

대순종지는 대순사상의 요체(要諦)를 집약하여 나타낸 중심개념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대순종지를 논하는 그 첫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순종지 이해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대순종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강증산(姜甌山) 구천상제(九天上帝)의 강세와 더불어 그 종통(宗統)을 계승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의 종단창설에서 비롯된다. 조정산 도주께서는 1925년 전북 구태인에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면서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기 위한 교리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때 공표되고 공식

화되어 오늘날 종지(宗旨)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16자로 이루어진 대순종지는 강세하신 구천상제의 선경건설(仙境建設)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며, 내일의 후천세계의 실상을 설명하는 말로써 대순사상 이해의 총체적 길잡이가 된다 할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강세하시어 행하신 주요 역사(役事)를 든다면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빼놓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천(先天)의 상극(相克)적 현실에서 진멸(盡滅)지경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강세하시게 된 구천상제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위기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원(冤)의 점철(點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천지공사를 단행하였다.⁵²⁾ 그래서 어떠한 원도 없는 세상을 이룩하므로써 영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룩되는 세

계는 오로지 구천상제에 의해서만 지어지는 전무후무한 지상선경(地上仙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지상선경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되고 그 실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상적 요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면 다름아닌 음양합덕(陰陽合德)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원리적으로 음양합덕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실상을 말할 때에도 음양합덕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경』을 고찰하면서 주로 공사편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내용을 중심으로 천지공사의 배경 및 공사사상 그리고 음양합덕의 실상을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상적 대의(大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음양합덕의 문헌적(文獻的) 근거

1. 음양(陰陽)의 개념과 대대성(對待性)논리

음양합덕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문자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글자의 뜻은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경위에서 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음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陰 闇也 水之南 山之北也 從阜 隞聲」⁵²⁾ (음은 어두움이다. 물의 남쪽이며 산의 북쪽이다.阜와 隞을 따라 소리난다.)

52) 전경, 공사 3장 4절.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灑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53) 『설문해자』 권 14, 대북 여명문화사업본부 유한공사, 民國 75년

「陽 高明也 從阜易聲」⁵⁴⁾ (양은 높고 밝음이다. 阜와 易을 따라 소리난다.)

여기서 阜(언덕 부)는 높고 위가 평평한 토산(土山)을 말한다. 갑골문에서는 阜로 표기되는데 특히 토산중에서도 비탈진 산측(山側)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⁵⁵⁾

의 본자는 𩇑인데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𩇑 雲覆日也 從雲今聲」⁵⁶⁾ (雲今은 구름이 해를 가리운 것이다. 雲과 今을 따라 소리난다.)

즉 𩇑의 본의(本意)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우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易은 설문해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易 開也. 從日一勿. 一曰飛揚 一曰長也 一曰疆者衆兒」⁵⁷⁾ (易은 열림이다. 日과 一과 勿에서 부터 나왔다.)

갑골문에서 易은 勿로 표기되는데 자형(字形)은 신에게 제사지내는 돌로 만든 제단위로 해가 솟아오른 모습이다. 금문에서는 「𠄎」(터럭 삼)을 덧붙여 햇빛을 표시하였다. 후에 와서 일부자형에서는 다시 「阜」를 덧붙여 태양이 언덕 위로 솟아 오르는 것을 표시하였다.⁵⁸⁾

이상을 살펴볼 때 음양의 본래 의미는 「태양의 빛남」과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짐」이외의 것일 수 없다. 뒤에 阜가 보태어 짐으로서 양(陽)은 「산측(山側)의 햇빛이 비추어지는 곳」, 음(陰)은 「햇빛이 비치는 반대편 산측의 그늘진 곳」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것이다. 양을 「山南水北」, 음을 「水南山北」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인신(引伸)된 것으로 본의(本意)는 아니다.⁵⁹⁾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양은 기후로 나타내는 <원시적>개념으로부터 이원기(二元氣)라는 <原質的>개념으로 발전하고 만물의 유기적 연관성과 변

54) 上同

55) 加藤常賢 『漢字の起源』 角川書店 소화 55년 p.659

56) 『설문해자』 p.580

57) 上同 p.458

58) 이낙의 『漢字正解』 p.558

59)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1989. 성대 박사논문, p.23

화의 기본양상을 표상하는 <범주적>개념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⁰⁾ 음양개념의 변용과정을 요약한다면 기후의 맑음과 흐림, 양지와 음지, 따뜻함과 추위 등 자연 현상을 나타내던 본래 의미에서부터, 춘추시대에 <육기(六氣)>의 한 요소로 발전되었다가 춘추말기에 <육기>가운데에서 돌출되어 <육기>를 대표하게 된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음양은 만물구성의 이원기(二元氣)라는 원질적(原質的) 개념으로 변용되며 전국말기에 이르러 질료적 성격이 탈각되면서 범주화되는 것이다. 물론 음양개념이 정확하게 <원시적 음양개념 → 원질적 음양개념 → 범주적 음양개념>이라고 하는 순서를 밟아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문헌에도 여러 유형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나 그 전개방향은 일단 이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⁶¹⁾

한편 이러한 음과 양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대(對待)>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 뜻은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계」, 「상호 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일단 규정될 수 있는데⁶²⁾ 이것은 『주역』의 원초적인 구성원리인 동시에 현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원리이다.

이 같은 대대관계는 최초로 — 과 — 라는 기호로 표상되고 뒤에 『주역』에서 괘(卦)와 수(數) 및 천지(天地) 남녀(男女) 왕래(往來)등의 용어로 서술되었는데 「십익」이 성립되면서 대대관계에 있는 전 개념쌍을 포섭하는 용어가 <음양>으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음양은 대대관계에 대한 언어적 표현 이외의 것이 아니다.⁶³⁾

<대대>에 대한 관념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⁶⁴⁾

첫째는 대대라는 관계는 무엇보다도 상반적인 타자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요구하는 관계이다. 대대적 관계에 있는 양자(兩者)는 경우에 따라 상호 배척적이며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을 부정할 수가 없다. 상

60) 최영진 上書, p.24

61) 최영진 上書 p.27

62) 金谷治 『易の話』 동경 강담사, '72 pp.150~151.

63) 최영진 上書 p.7

64) 이하는 최영진 上書 pp.34~37을 요약 정리한 것임

대방의 부정은 곧 자신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관계에 있는 개념쌍들은 모두 <음양>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상반적 또는 상호 모순적 관계를 상호 배척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성취의 관계, 더 나아가 운동의 추동력의 근거로 본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른바 「상반상성(相反相成)」의 논리이다. 즉 남녀·전기의 + - 와 같이, 같은 성(性)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배척하며 반대되는 성(性)·극(極)끼리는 서로 감응함으로써 조화되고 합일(合一)된다는 <상반응합(相反應合)>의 사고이다.

세번째 특징은 대대관계에 있는 양자(兩者)는 대대관계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네번째, 대대는 공간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적 관계성을 포섭한다는 점이다. 일·월·한·서(日月寒暑)는 하루 또는 일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지평 위에서 대대관계를 갖는다. 즉 대대는 공간적 구조와 동시에 시간적 변화선상에서도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음양의 개념과 그 대대적 논리를 기저로 하여 음양합덕이라고 하는 이상적 공효(功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언설은 『주역』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주역』에 나타난 음양합덕

『주역』에서는 음양의 대대적 논리에 의하여 만물의 생성과 변화 발전을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음양합덕은 만상(萬象)을 생(生)하는 근본 원리가 되며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역사상의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역』의 원문에 나타난 음양합덕에 관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A. 子曰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공자 말하기를, 건곤은 그 역의 문이라! 건은 양의 사물이요 곤은 음의 사물이니 음과 양이 덕을 합해서 강하고 유한 것에 체가 있는지라. (건곤으로써) 천지의 일을 체득하며 신명의

덕을 통하니)

B. 其稱名也, 雜而不越, 於稽其類, 其衰世之意耶⁶⁵⁾ (그 이름을 일컬음이 섞이되 넘지 아니하나 그 종류를 상고함엔 그 쇠한 세상의 뜻인저!)

윗 글에서 A에 나타난 내용은 음양합덕이 만물을 생(生)하는 본체(本體)가 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주자는 주석하기를 ‘모든 괘는 강유의 본체이니 건곤으로서 덕을 합하여 이루어지므로 건곤은 역의 문이라고 하였다.’⁶⁶⁾라고 하여 주역 육십사괘는 모두 음양이 합덕(合德)하여 이루어진 본체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음양은 형이하자(形而下者)에 속하며 건곤은 형이상자(形而上者)에 속한다. 이에 대해 진재 서씨(進齋徐氏)는 말하기를 ‘음양합덕이란 두 사물이 교착(交錯)하여 서로 합함이 있는 것을 말함이며, 강유에 체가 있다는 것은 괘효(卦爻)를 이루는 본체임을 말한 것이다. 천지의 찬이라 함은 음양 조화(造化)의 자취이다.’⁶⁷⁾라고 주석하여 건곤이라는 두 사물이 서로 합하는데서 나오는 조화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B에 나타난 내용은 주역의 괘 순서가 복희씨 때의 자연적인 순서로 놓인 것과는 달리 섞어 놓았으나 64괘박을 넘어가지 않았고 그 음양의 섞인 뜻을 상고해 볼때 은나라 말엽의 주왕(紂王)과 문왕의 일을 엮어놓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 즉 괘명(卦名)에 있어 정(井)·정(鼎) 등과 같이 사물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둔(屯) 몽(蒙) 등과 같이 일의 변화로써 이름한 것도 있지만 음양의 덕이나 강유의 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을 주자는 해석하기를 ‘만물이 비록 수없이 많으나 음양의 변화에서 나오지 않는게 없다. 그러므로 괘효(卦爻)의 뜻도 비록 잡다하게 나오나 어긋나 잘못되지 않는다.’⁶⁸⁾라고 하여 음양의 변화에서 모든 만물이 나오므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다름아닌 음양합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의 사물을 건(乾)이 대표하고 음의 사물을 곤(坤)이 대표하는데 건은 하늘(天)을 뜻하며 곤은 땅(地)을 뜻하므로써 하늘과 땅의 덕이 합하여 모든 사물이 임태

65) 『주역』 繫辭傳 下 6장

66) 『주역』, 계사 하, 本義 「諸卦剛柔之體, 皆以乾坤合德而成, 故曰, 乾坤易之門」

67) 『주역』, 계사 하 「陰陽合德 謂二物交錯 而相得有合, 剛柔有體 謂成卦爻之體也, 天地之撰, 陰陽造化之迹也」

68) 『주역』, 계사 하 「萬物雖多, 无不出於陰陽之變, 故卦爻之義, 雖雜出而不差繆」

되어 나온다는것도 아울러 추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천덕(天德)과 지덕(地德)이 합해서 만물을 생성한다는 것은 음양조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천지가 그 덕을 합한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모든 만물은 새로운 변화와 조화의 자취가 생기며 나아가 신명의 덕과도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양합덕은 주역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본체가 되는 원리이며 나아가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조화의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 장에서는 구천 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시어 단행한 천지공사가 바로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시키려 하셨으며, 나아가 음양합덕이야말로 내일의 후천세계를 살아가는 조화의 사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나타난 음양합덕론

1. 천지공사의 배경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함은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세에 머무는 동안 행하신 대역사(大役事)를 일컫는 말이다. 그 어의(語義)를 새겨보면 「천지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천지의 주관자가 주재하여 구성원 공동으로 사안을 내놓고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므로써 이를 천지에 확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인간이 바탕하여 살고 있는 천지가 어느 시기에 하나의 전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권능의 소유자이며 최고 위격에 계신 분께서 직접 천지를 둘러보시고 또 인세(人世)에 강세(降世)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인계(人界)를 둘러보신 뒤 가장 이상적인 세계의 실상을 설계하고 이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천지공사’라고 한다. 이러한 천지공사는 단순히 하나의 사상적 전승(傳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유일하게도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인세에 강세하신 상제에 의해 직접 지어져야만 하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그 역사(役事)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전경』의 다음구절에서 확인

될 수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 고 분부하셨도다.⁶⁹⁾

즉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상제에 의해서 만이 가능한 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제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또는 천지는 어떠한 불안이나 모순이 없는 무궁한 선운(仙運)을 약속하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대순사상의 종지에 입각해 볼 때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내용은 바로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 이상세계의 실상(實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존재양상을 음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그 범주를 구성하는 상대적 요소가 서로의 덕을 합하여 이루어 내는 이상적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음양합덕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 주도하는 천지공사의 방향을 ‘음양합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한 그 공사의 배경도 이러한 음양합덕이 이루어 지지 못한 선천(先天)의 세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상제의 천지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음양합덕론에 근거해 볼 때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 다음의 전경구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69) 『전경』 공사 1장 2절

A.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제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천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⁷⁰⁾

B.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⁷¹⁾

A의 구절을 살펴보면, 오늘날 인간의 모든 과학문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양문명이 사실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 근원은 이상세계로서의 ‘천(天)’의 한 단면일 따름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 문명을 이루어 나갈 때 주로 물질에 치우쳐 그 본원을 잃어버리는 행태(行態)를 보이게 되었다. 즉 자연을 파괴하고 물질을 숭상하여 인륜도덕을 무시하며 여러 성자(聖者)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들은 급기야는 천도와 인사

70) 『전경』 교운 1장 9절

71) 『전경』 공사 1장 3절

의 상도를 어기고 삼계를 혼란시키며 도의 근원을 끊어지게 해 인류의 진멸 지경을 이끌어 내었으니 이로써 역대의 모든 신성 불 보살등이 구천에 하소 연하여 상제께서 직접 강세하지 않으시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의 근원이란 천지를 생겨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질서있게 유지시켜 주는 하나된 법칙 또는 조화의 원리를 가리킨다고 본다. 이 조화의 원리는 둘이 될 수 없으며 하나로 관통하는 진리체계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문명이 이러한 도의 근원에 입각하여 발전된다면 굳이 물질에만 치우치지 않고 한편으로 정신문명까지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만 치우쳤다면 물질과 정신의 상호 부조화로 인해 도의 근원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앞장에서 살펴본 음양론에 비추어 볼 때 물질과 정신의 관계도 음과 양이라는 범주속에 넣어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시적(可視的)인 물질을 양(陽)으로 배속(配屬)한다면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정신은 음(陰)으로 배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음으로서의 정신과 양으로서의 물질이 선천에서는 상호 합덕(合德)될 수 없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선천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한 우주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제께서는 바로 음양이 합덕되는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천에서는 왜 음양의 합덕을 이룰 수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B의 구절을 검토해 보므로써 해결될 수 있다.

B의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선천에서 상도를 잃어버리고 모든 참혹한 재화가 발생한 원인은 그 세상이 '상극'의 원리에 지배된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극(相克)'이란 달리 말하면 '상호 극해(相互剋害)'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선악이 공존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호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 상대적 관계를 말하자면 '음양'의 범주속에 포함되는 모든 사물의 대립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물과 불, 남과 여, 기업주와 회사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신, 과학과 종교, 물질과 정신 등 그 대표적인 갈등관계를 표현하는 대립물들이 어떠한 상호 이해의 장(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로를 적대시 여기고 정복해 나가하고자 하는 과정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선천의 상극적 현실이었던 것

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서양의 변증법적 발전의 논리를 이끌어 낸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문명이 맞이한 위기상황의 주범은 그 본질적인 상극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음과 양이 서로 성질을 극단적으로 달리 한다고 해서 상호 대립하고 적대시 여기는 것은 도의 근원을 망각한 처사이며, 나아가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감소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상제의 천지공사가 단행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음과 양의 상극적 관계로 인한 부조화로 발생된 천지의 겹얹을 해소하고자 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상극의 도'가 아닌 '상생의 도'로써 새로운 천지를 만들어 진정한 음양합덕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대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러한 천지공사의 배경에서 실재 이루어진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을 살펴보므로써 음양합덕에 근거한 공사(公事)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해본다.

2. 음양합덕에 근거한 공사사상(公事思想)

음양합덕에 근거한 천지공사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별적 음양에 대한 음양의 해원사상이며, 둘째는 이러한 해원이 있고 난 후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대비시키는 일음일양의 사상이며, 셋째는 이러한 음양의 상호 조화를 통해 무궁한 선경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의미도 들어 있지만 그 최종적인 공효(功效)를 생각해보면 서로 떼어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음양의 해원사상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한 공사의 단행은 제일 먼저 개별적 음양에 대한 해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경』에서 말하기를 '지기가 서로 통일 되지 아니하여 인류가 서로 반목 쟁투하는데

서부터 원이 쌓였으며 이러한 원이 천지에 가득 차므로서 인류가 파멸지경에 처하였음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⁷²⁾ 그리하여 천지공사는 먼저 음양으로 나뉘어지는 세계에서 그 음양 각각에 대한 해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별적 음양에 대한 해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남녀의 문제가 있다. 예로부터 남녀의 분별이 엄격하여 상대적으로 남성우위의 풍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로써 남녀의 차별과 상대적으로 여성의 억압된 역사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여성을 ‘음’이라고 한다면 남성은 ‘양’에 해당되므로 해원을 위주로 하는 천지공사에서 그 음양 각각에 대한 해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⁷³⁾

위의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각기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음이 지니는 음덕(陰德)이 최대한 발휘되고 양덕(陽德) 또한 최대한 발휘되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드러나고 그 가운

72) 공사3장 4절과 3장 5절참조.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혁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73) 『전경』 공사 1장 32절

데에서 장점만을 취하여 서로 결합시키는 것은 음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이후에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음덕과 양덕의 장점만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양의 범주에서 볼 때 오늘날 물질에 치우친 인류의 가시적(可視的)문명은 한편으로 양(陽)적인 가치에 치중해서 진행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명의 폐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을 조장하고 자연을 정복하는데서 모든 죄악을 저질러 상대적인 음의 문명을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천지공사는 '신도로 부터 원을 풀고' 나아가 인사가 저절로 이룩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니 결과적으로 정신문명이 새롭게 대두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⁷⁴⁾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경도(傾倒)된 물질문명의 폐해가 있다고 해서 그 문명의 이기가 다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나름의 덕이 온전히 성숙되는 것이 또한 음양의 해원속에 내포되어진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전경구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좃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좃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견어야 옳으냐.」 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익이 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⁷⁵⁾

74) 『전경』 공사 1장 3절 참조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75) 『전경』 공사 1장 35절

상제께서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써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 종도들이 상제의 명을 좇아 공신의 집에서 밤중에 서로 번갈아 그 집의 물독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다시 우물 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우물과 독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엌도다.⁷⁶⁾

즉 문명의 이기란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본을 뺐다’는 말은 그 표면적인 것만을 취했다는 것이니 아울러 신도의 권위가 가미된 음양합덕의 문명이야말로 진정한 천국문명 그 자체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물화(物貨)가 상통(相通)하는 세계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물질문명의 회복임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음양의 해원도 이러한 견지에서 어느 일방의 의사도 무시하지 않는 각자의 장점된 모습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일음일양(一陰一陽) 사상

음양 각자의 해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음과 양은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양적인 차이나 질적인 우열을 논할 수 없는 상보적(相補的)관계에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사상이다. 동양고전인 『주역』에 보면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하게 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⁷⁷⁾라고 하였으니 일음일양이란 음과 양의 대등한 만남을 명제화한 것이다. 음양 각자가 지니는 그 자체의 덕을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공효는 음양의 비율로 보나 그 상대적 우열로 보나 차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일음일양의 원리로 천지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

76) 『전경』 공사 2장 23절

77) 『周易』繫辭上傳

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웅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 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웅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⁷⁸⁾

위에서 건곤(乾坤)은 천지를 의미하며 각각 음양을 대표한다. 이 때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곤이 있을 뿐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일음일양을 가리키고 있다. 상제께서 보신 공사중에 「선천에서 삼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관 십이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라 써서 약방의 문지방에 붙인 것은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한 음양을 고르게 하여 일음일양을 이루게 하신 공사로 볼 수 있다.⁷⁹⁾ 따라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서로 상대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는 어떠한 상대적 우열도 없는 절대 동등의 세계에서 만남이라 하겠다.

앞서 음양의 해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양의 비유로 가장 많이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남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유를 일음일양에도 적용시켜보면 천지공사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주로 남녀에 있어서의 일음일양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다.

78) 『전경』 공사 2장 16절

79) 『전경』 공사 2장 20절 참조

A.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오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 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 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 고 이리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 고 말씀하셨도다.⁸⁰⁾

B.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라 써서 불사르셨도다.⁸¹⁾

C. 백 남신의 친족인 백 용안(白龍安)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 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 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⁸²⁾

A의 구절은 과부와 홀아비의 관계를 빌어 일음일양을 설명한 구절이다. 선천에는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어 왔으나 일음일양을 이루게 되면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개가케 하는 것이 원리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사로 처결되어 후천 오만년을 결정짓게 되었다고 상제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지공사가 음양합덕의 이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B의 구절을 보더라도

80) 『전경』 공사 2장 17절

81) 『전경』 교법 2장 57절

82) 『전경』 권지 1장 17절

대장부(大丈夫)와 대장부(大丈婦)는 서로 일음일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C에서는 남장군과 여장군을 비유하여 음과 양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만나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로 남과 여로 비유되는 일음일양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불균등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류가 평안을 누리며 또한 저마다의 해원이 이루어진 이상세계의 건설 원리는 다름아닌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화(調和)할 수 있는 음양합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일음일양의 사상은 바로 그러한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천지공사에서 이러한 일음일양의 원리에 바탕하여 나아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음양의 조화사상(調和思想)

음양의 조화라는 말에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음과 양의 상극적 관계로부터 상호 화해의 상생적 관계로의 전환을 말하며, 또 하나는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르게 이루어지는 균형된 상태를 말하며, 세번째는 각각의 정수를 뽑아 하나로 합일하여 새로운 총체(總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경』에 나타난 천지공사에서는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개별적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음과 양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상극적인 태도를 상호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살펴보자.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광찬이 여쭙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셨도다.⁸³⁾

83) 『전경』 공사 1장 25절

위에서 존양반과 음내 아전은 서로 상극적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음과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상제와 종도가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 대표하여 정하고 '나와 너가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고 한 것은 음과 양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화해할 것을 공사로서 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음양이 서로 표면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서 대립하고 시기하며 투쟁하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선천의 현실이라면 음양의 화해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상보적인 관계로 만나므로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같이 만나서 이루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음양의 화해(和解)가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음양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또한 조화의 의미속에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균형이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은 끌어 내리며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것은 또 끌어올려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화(中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⁸⁴⁾ 『전경』에는 이러한 균형의 의미를 지니는 공사가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음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물과 불 그리고 인간의 신분적 격차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구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무신년 봄 백암리 김 경학·최 창조의 두 집으로 왕래하시며 성복제와 매화(埋火) 공사를 보셨도다. 김 광찬의 양모의 성복제가 최 창조의 집에서 거행되었느니라. 창조는 상제의 지시에 좇아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고기에 계란을 입혀 전을 만들고 대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곳에 두고 또 상제의 분부에 따라 상제의 의복 한 벌을 지어 두었도다. 저육전이 다 썩었으므로 창조가 동곡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그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하시고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태인에 가서 최 내경·신 경원을 데리고 창조의 집에 가라. 오늘 밤에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정문 밖에 한 사람이 엎드릴 만한 구덩이를 파고 나의 옷을 세 사람이 한 가지씩 입고 그 구덩이 앞에 청수 한 그릇과 화로를 놓고 작은 사기 그릇에 호주를 넣고 문어 전복 두부를 각각 그릇에 담아 그 앞에 놓아라. 그리고 한 사람은 저육전 한 점씩을 집어서 청수와 화로 위로 넘기고 한 사람은 연달아 넘긴 것을 받고 다

84) 中和의 의미에 대해서는 『中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中庸』 1장)

른 한 사람은 다시 받아서 구덩이 속에 넣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빨리 돌아오너라」고 일러주시니 형렬이 그대로 시행케 한 후 시급히 상제께 돌아가는 길에 돌연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지고 뇌전이 크게 치는지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 때 쯤 일을 행할 때가 되었겠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행할 그 시간이 되었겠나이다」고 여쭙었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뒀날 변산 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계가 타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 하셨도다.⁸⁵⁾

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 호승예불(胡僧禮佛)을 써주리니 역군(役軍)을 먹일만한 술을 많이 빚어 놓으라」 이르시니라. 공우가 이르신대로 하니라. 그후에 상제께서 「장사를 지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종도들과 함께 술을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기운이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⁸⁶⁾

또 어느날 상제의 말씀이 계시었도다. 「이제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씨의 재실(避亂洞安氏齋室)에 가서 우물을 대(竹)가지로 한 번 저으시고 안 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재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명하신대로 재실에 간즉 재직이 사흘 전에 죽고 그 부인만 있었도다.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뎌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 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성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행상(行商)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재실 청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만수(萬修)를 크게 외치게 하시고 「이 중에 동학가사를 가진 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데도다. 그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시운 벌가 벌가 기축불원(詩云伐柯伐柯其則不遠)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이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오. 부재어근(不在於近)이라.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없이 하다가 말래지사(未來之事)가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한(恨)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사람이 혼몽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⁸⁷⁾

위의 세 구절에서는 불과 불에 있어서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즉 ‘뒀날 변산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계가 타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불의 세력이 지나치게 성대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물기운이

85) 『전경』 공사 3장 1절

86) 『전경』 공사 3장 20절

87) 『전경』 공사 3장 21절

고갈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과해지는 불기운을 묻고 상대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물기운을 돌리는 공사를 보시게 되었다. 여기서 물과 불은 각각 음과 양에 배속시킬 수 있으며 상대적 음의 약세와 양의 강세는 불균형을 이루어 그 폐해가 우려되므로 천지공사에서는 불을 묻고 물기운(水氣)을 돌리므로서 음양의 균형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양의 균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구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각일지라」고 이르셨도다.⁸⁸⁾

윗 구절은 인간사회내에서 신분의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예로 든 것이며, 음과 양은 상대적 빈부 또는 지혜의 정도, 강약의 정도에 따라 불균형을 이루어 왔던 것이 선천의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천에서 맞이 하는 음양합덕의 이상속에는 음양의 상대적 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간 상호관계내에서 빈부나 지혜나 강약에 있어서의 균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세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으로서 음양의 합일(合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음양조화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합일의 의미속에는 ‘통일(統一)’이나 ‘겸비(兼備)’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합일한다 함은 음양합덕의 구극적(究極的)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⁸⁹⁾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88) 『전경』 교법 2장 11절

89) 『전경』 예시 13절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⁹⁰⁾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나라.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 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⁹¹⁾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벼를 꼬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 장과 양지 너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⁹²⁾

위의 제 구절들은 음양의 합일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다. 즉 모든 도법(道法)을 하나로 합하고 강산의 정기를 뽑아 하나로 만들며 신과 인간의 합일이 또한 조화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⁹³⁾

윗 글에서는 합일의 또다른 의미인 통일을 거론하는 부분이다. 즉 문화의

90) 『전경』 예시 30절

91) 『전경』 공사 3장 6절

92) 『전경』 공사 3장 7절

93) 『전경』 예시 12절

통일을 이룬다는 말은 서로 나뉘어진 문화의 정수를 뽑아서 그 장점만을 살려 서로 합하는데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루어져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갈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본원은 다르지 않다는 데서 통일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본래의 하나가 어떤 계기에 의해 나뉘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졌을 때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달리 말해서 본원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합일의 의미속에 내포된 것으로 '겸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인간 심성에서 갖추어 할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상제께서 경석의 집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도다. 그의 사촌 형이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서 경석에게 수없이 패설하는 데도 그는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기에 더욱 기승하여 횡포를 부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스스로 돌아가니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경석에게 「너의 기운이 너무 빠졌도다. 덕으로만 처사하기는 어려우니 성(聖) 웅(雄)을 겸하라」 고 당부 하셨도다.⁹⁴⁾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⁹⁵⁾

위에서 비교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는 성(聖)과 웅(雄)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그 본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의 추이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음양의 합일속에 그것이 겸비된 인간이 새로 탄생해야만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과 웅이 한갈래로서 인간의 심성속에 겸비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음양합덕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음양의 조화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크게는 화해와 균형과 합일로 살펴본 천지공사의 음양합덕은 그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하나의 방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을 통한 이상세계의 건설은 그 구체적인 공사의 구조로 인해 엄밀하게 진행되어 나갔다고 볼 수

94) 『전경』 교운 1장 49절

95) 『전경』 교법 3장 26절

있겠다. 다음으로는 음양합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상세계의 실상을 그 가치실현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음양합덕의 실현

음양합덕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지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이상적 세계가 이룩되는 것은 음양합덕의 현실적 실현에 다름아니다. 선천의 상극적 현실에서부터 모든 부조리가 생겨나고 인간의 고통도 이러한 환경에서부터 기인하였다면 음양합덕의 천지공사로 인해 주어지는 후천의 실상은 어떠한 인간적 번뇌나 환경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풍요의 세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음양합덕이 자연환경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나아가 인간의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베풀어지는 혜택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또한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다름아닌 인간 존재에 있으며, 인간 존재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그것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음양합덕의 바탕위에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음양합덕의 이념이 전 범위에 걸쳐서 먼저 펼쳐져야만 하는 것은 모든 가치이념들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에서는 말하기를

상제께서 정미년三月초에 광찬을 대동하고 말점도(末店島)에 들어가시려고(광찬의 재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고 있었음) 갑철과 형렬을 만경 남포(南浦)에 불러 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됨이니 너희들은 성백(成伯)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四十九일 동안 하루에 짚신 한 켤레와 종이등 한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계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 하셨도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성백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짚신을 원평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등에는 각기 「음양(陰陽)」 두 글자를 쓰셔서 불사르시니라.⁹⁶⁾

라고 하여 음양에 대한 공사를 보신 것이 있다. 여기에 상제께서 ‘그 신을 천하사람에게 신계 하고 그 등으로 천하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고 하신 것

96) 『전경』 공사 2장 1절

은 음양에 대한 공사가 전 인류 전 우주에까지 이르러 고루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밝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음양합덕의 가치가 실현되어 전 우주가 그 혜택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이상사회의 모습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사의 원리로 사용되었던 것이 다름아닌 음양합덕이었음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양합덕이 실현된 구체적인 모습을 『전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면 먼저 다음과 같은 후천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 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하셨도다.⁹⁷⁾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⁹⁸⁾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⁹⁹⁾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천은 음양합덕으로 베풀어지는 무한한 풍요의 세계이다. 물자의 부족함도 없으며 자연의 재해도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 고통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낙원의 세계이다. 자연의 환경에서부터 무한한 풍요가 약속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인간사회의 모든 원울과 번뇌가 사라

97) 『전경』 공사 1장 31절

98) 『전경』 교법 3장 41절

99) 『전경』 예시 81절

지는 대평화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음양합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세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존재의 지고한 가치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인존(人尊)'이라는 개념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인존이란 '인간의 신격화'라고도 정의내릴 수 있다.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어 지고 우주운행의 주체를 인간이 담당하는 인간가치의 극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인간존재의 본질이 음양합덕에 있고 이러한 음양합덕의 원리가 전 우주에 미칠 때 그 혜택을 누리는 주체가 인간이 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전경』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왕은 유리(羨里)에서 삼백 팔십 사효를 지었고 태공(太公)은 위수(渭水)에서 삼천 육백개의 낚시를 버렸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나고 태공의 도술은 이 때에 나오나니라」 하시고 「천지 무일월 공간(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이라 하셨도다.¹⁰⁰⁾

라고 하여 천지·일월도 결국 상대자로서의 인간을 통하여 그 가치가 확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천지와 일월이 아무리 그 밝음과 위대함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것을 계승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인간주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을 위한 자연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음양합덕의 공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존의 가치에 대해서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¹⁰¹⁾

이 도삼이 어느날 동곡으로 상제를 찾아 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낱알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표범·이리·늑대로부터 모기·이·벼룩·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 하셨도다.¹⁰²⁾

100) 『전경』 예시 21절

101) 『전경』 교법 2장 56절

102) 『전경』 공사 3장 8절

즉 인존이란 천존 지존과도 대비되는 절대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을 위한 인간중심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또한 인존의 실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란 단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계, 천지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삼라만상이 인간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세계는 음양합덕에 근거한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귀결처라고 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천지공사에 나타난 음양합덕론을 고찰해보았다. 모든 사상이 다 그러하겠지만 대순사상 또한 그것이 배태(胚胎)될 수 있는 배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때 대순사상의 발생배경이란 '선천'이라고 하는 인류역사의 전단계를 진멸(盡滅)적인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우주의 주재자격인 상제의 강제로 인한 새로운 천지의 창조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공사'로 일컬어지는 대역사(大役事)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이 있다면 이는 다름아닌 '음양합덕'의 실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사상의 종지를 구성하는 개념 가운데 음양합덕이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고의 바탕이 되고 인류를 둘러싼 환경을 이상적으로 이룩하는 이념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가 바탕하고있는 것이 바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며 그 환경을 이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성원리가 음양합덕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합덕으로 인해 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과 같은 여타 종지가 산출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먼저 음양합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므로써 여타 종지에 대한 이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그만큼 음양합덕은 대순종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음양합덕을 천지공사에서 위주로 한 하나의 이념적 방향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실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는

또한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고루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사상적 연원에 입각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천지공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방향성과 이념적인 토대를 음양합덕에서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대체(大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 고 문 헌】

- 原典類 -

-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1969
 『大巡眞理會 要覽』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1969
 『四書集註』
 『禮記』
 『周易』
 『花潭集』
 『性理大全』
 『與猶堂全書』
 법정 역 『정토삼부경』 민족사, 1995
 『儒學原論』 성대출판부, 1992
 『佛敎學概論』 동국대 출판부, 1992

- 單行本類 -

- 길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서울 민음사, 1994
 김상일 『현대물리학과 한국철학』 고려원, 1991
 김용정 『第三의 哲學』 사사연, 1986
 김용준 역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1980
 김태길 『倫理學』 서울 박영사, 1994
 김태길 외 『철학개론』 서울대 출판부, 1993
 김흥경외 역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박종천 『기어가시는 하느님』
 최영진 『탈근대문명과 유교』 『과학사상』 1996 여름호
 최영진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성대 박사논문, 1989
 최영진 『동양과 서양』 서울 지식산업사, 1993
 하종호 역 『종교철학』 이대 출판부, 1994
 加藤常賢 『한자의 기원』 角川書店 소화 55년
 이낙의 『漢字正解』 비봉출판사, 1994

金谷治 『易の 話』 동경 강담사, 1972

- 其他 -

『佛敎學大辭典』 흥법원

『儒敎大事典』 박영사

『說文解字』 대북 여명문화사업복분 유한공사